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②
21. ②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⑤	27. ①	28. ③	29. ①	30. ①
31. ⑤	32. ⑤	33. ③	34. ④	35. ③	36. ③	37. ①	38. ③	39. ④	40. ⑤
41. ⑤	42. ③	43. ④	44. ②	45. ④					

[1~3]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청중에게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유성 볼펜, 수성 볼펜,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가압 볼펜 등 다양한 볼펜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청중의 대답에 발표자가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발표자는 볼펜을 화제로 제시하기 위해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발표자는 ‘볼펜의 볼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라고 질문을 한 뒤 볼펜의 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발표 대상인 볼펜의 특징이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며 글씨가 써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볼펜을 만년필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볼펜의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면서 글씨가 써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볼펜의 구조 중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른 모세관 현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② 자료 2는 본체 끝에 볼이 삽입되어 있는 볼펜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을 뿐, 볼펜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④ 자료 3에는 대롱의 끝을 오므려 볼펜의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자료

가 볼펜의 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자료 3을 통해 볼펜이 대롱의 잉크가 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은 발표 내용과 무관하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발표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대답의 핵심 내용은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만년필 필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으로는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과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발표자의 대답 내용에 만년필 외의 필기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년필 외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를 묻는 ②는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발표자의 대답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은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자의 대답에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펜촉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펜촉의 형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는 ④는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에 대한 답변이므로, ⑤는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7] 화법, 작문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반대 1은 입론에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에 바탕이 되는 정보가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편리한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지원자

가 불편을 겪거나 면접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②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경제적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찬성 1은 비용 절감의 사례를 활용하여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당장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④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가 객관적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찬성 1은 기존 면접과 달리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의 개입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접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5.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2의 반대 신문과 그 반대 신문에 대한 찬성 1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반대 2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객관적이라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해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축적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면접관의 주관이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 1은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여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지지하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반대 2는 찬성 측이 활용한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면접관의 주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B]에서 찬성 1은 △△회사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다는 상대측의 진술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④ [B]에서 반대 1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상대측의 근거 자료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의 찬성 1은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상대측의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인공 지능 면접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에서 반대 1은 인공 지능 면접의 확대 추세에 대해 상대측 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인공 지능의 한계가 드러나 인공 지능 면접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과제 학습장에는 반대 1의 입론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지닌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활용하여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글쓰기 전략이 2문단에 대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2문단에는 인공 지능은 도구에 불과하므로 인공 지능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기술적 결함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의 면접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둘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 앞에서 면접을 치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셋째 문장에서 인공 지능은 빅데이터라는 정보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계일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인공 지능 면접이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에 반박하는 글쓰기 전략을 바탕으로, 4문단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조건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생성

정답해설 : <보기>는 1문단의 첫째 물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둘째 물음에 대해 2문단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라는 내용이다. ④는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첫째 물음에 대해,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둘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인 ‘주체’, ‘객체’를 사용하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이라고 그 관계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는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지만,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를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공존’인데, 이 단어는 2문단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③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첫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문장은 2문단에 사용된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르는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도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초등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역 방언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②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은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분석한 것으로, 3문단 첫 문장에서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뒤이어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올갱이, 데사리, 민물고동’ 등의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9. 글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

정답해설 : [자료 2]는 공적인 언어로서의 표준어가 방언 사용 지역에서 사적인 언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이다. [A]는 지역 방언이 사라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단락이므로, [자료 2]를 활용하여 방언 사용 지역에서 표준어 사용 상황이 확대되는 경향을 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의 언어 의식 조사로, 2010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는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부정적 느낌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만 가지고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자료 1]에서 표준어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에는 변화가 없고 그 비율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과 지역

방언 교육 정책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료 2]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자료 2]는 공식적 상황에서는 물론 비공식적 상황에서도 표준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 부재’라는 내용은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 1], [자료 2]를 통해서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대중 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으로서 추가할 수도 없다.

10. 고쳐 쓰기의 이유 추론

정답해설 : [고친 글]을 [B]와 비교해 보면, [B]에서 주장만 나열한 문장들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등의 근거를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시 고친 글]을 [고친 글]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문장이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글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여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추가한 부분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완결되지 않은 문단을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③ 추가한 부분은 연결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삭제한 문장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지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아니다. ④ 글의 목적이 지역 방언에 대한 보호 촉구이므로 주장만 제시된 [B]에 근거를 추가한 것을 부족한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점검 과정에서는 담화 표지가 아니라 문장 하나를 삭제하고 있다. ⑤ 추가한 부분을 주요 개념 설명을 위한 부연 설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계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은 글의 앞 문단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문장이 중복된 내용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12]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사이의 관계

지문해설 : 이 글은 먼저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개념을 밝히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지니는 주요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다의어가 중심 의미로 사용될 때에 비해,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데 이때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1. 다의어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눈’의 중심 의미는 ‘감각 기관’이고, ‘눈이 나빠지다’의 ‘눈’은 ‘시력’을 뜻하는 주변 의미이다. 기존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주변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3문단의 진술을 고려할 때, ‘눈’의 기존 의미인 ‘감각 기관’에 비해, 확장된 주변 의미인 ‘시력’이라는 의미가 ‘더 구체적’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다. ‘별’은 중심 의미가 ‘천체의 일부’이고, 주변 의미가 ‘군인의 계급장’이기 때문에 ①은 추론 가능한 진술이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앉다’는 중심 의미가 ‘착석하다’이고, 주변 의미가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이기 때문에 ②는 추론 가능한 진술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다의어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다’의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의 ‘이르다’ 사이에는 의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전자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고, 후자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의 뜻을 지니는 형용사로, 이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다의어가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팽이가 돌다/팽이를 돌리다’에 쓰인 ‘돌다’에 비해 ‘군침이 돌다’에 쓰인 ‘돌다’는 사동형 ‘군침을 돌리다*’가 불가능한 문법적 제약을 지닌다. 이를 감안할 때,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2. 다의어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민수가 말한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 반면, 영희가 말한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한다. 즉 다의어 ‘빚쟁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희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를 뜻하는 반면, 민수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한다. 즉 다의어 ‘금방’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영희가 말한 ‘돈’과 민수가 말한 ‘돈’은 둘 다 ‘화폐’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의 ‘뒤’와 ‘발표 끝난 뒤에’의 ‘뒤’는 둘 다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3. 음운 변동과 음절 유형 이해

정답해설 :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ㄱ’이 ‘ㅇ’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국(4)’, ‘궁(4)’이어서 변화가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ㅅ’이 ‘ㅍ’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상(4)’, ‘쌍(4)’이어서 변화가 없다. ② ‘집일[짐닐]’에서의 [닐]은 ‘ㄴ’이 첨가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일(3)’ → ‘닐(4)’로 달라졌다.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된 결과이지만, 음절 유형은 ‘함(4)’, ‘캄(4)’이어서 변화가 없다. ⑤ ‘화살[화샬]’에서의 [화]는 ‘활 + 살’의 과정에서 ‘ㄹ’이 탈락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활(4)’ → ‘화(2)’로 달라졌다.

14. 품사 및 시간 표현 이해

정답해설 : ㉔의 ‘남은’은 동사 ‘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㉒에 해당한다. ㉕의 ‘찬’은 ‘이미’라는 부사로 짐작할 수 있듯이 동사 ‘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도 ㉒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의 ‘뜯은’은 동사 ‘뜨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㉒에 해당한다. ② ㉖의 ‘부르던’은 동사 ‘부르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된 경우이다. ㉗의 ‘푸르던’은 형용사 ‘푸르다’의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된 경우로, 이때의 ‘-던’은 ㉒에 해당한다. 따라서 ㉗의 ‘푸르던’만 ㉒에 해당한다. ④ ㉘의 ‘읽는’은 동사 ‘읽다’의 어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㉒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㉙의 ‘빠른’은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으)ㄴ’은 ㉒에 해당한다.

15.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㉔의 ‘나리’는 ‘날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㉑)이다. 마찬가지로, ㉕의 ‘아드리’는 ‘아들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㉑)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㉖의 ‘太子(태자)’에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太子(태자)’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는 음운 조건이 아니므로, 만일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면 ㉠처럼 ‘太子ㅣ’로 나타났어야 한다. ㉠의 ‘ㄷ리’는 ‘ㄷ리 + ∅’로 모음 ‘이’ 다음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에 비해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 ‘孔子ㅣ’는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인, ‘孔子(공자)’의 ‘ㅏ’ 다음에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경우이다.

[16~20] 독서

[16~20] 인문, ‘베이즈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는 다르게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한 베이즈주의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조건화 원리가 적용될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정도가 변화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여 믿음의 태도를 보다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주제] 조건화 원리에 따른 믿음의 정도 변화 양상

1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베이즈주의자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

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아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가 그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베이즈주의자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베이즈주의는 조건화 원리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을 언급하였다. 또한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하였다고 언급하고 임의의 명제에 대하여 각 인식의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보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1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옳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태도에 강하거나 약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것처럼 임의의 명제에 대한 믿음을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이들은 ‘베이즈주의자’(㉡)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각 인식 주체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은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옳이 ㉠이라면 옳은 동시에 ㉡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옳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옳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은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각 인식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옳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은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말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8.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베이지주의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화 원리가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고 볼 수 없다. ③ 2문단에서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⑤ 1문단에서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각 인식 주체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2문단에서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될 경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이지주의의 정교한 설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화 원리의 적용 여부가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없으므로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1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은 ㉡와 관련이 있는 명제로, 2문단에 언급된 조건화 원리에 따라 ㉠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 정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 병과 정의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더라도 ㉠를 알게 된 후에 ㉡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새롭게 변하는 것이므로 ㉠를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병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보기>에서 병과 정의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고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는 명제 ㉡에 대해 병과 정의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병이 참이라고 ㉠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 수첩에 병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병과 정의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보기>에서 병과 정의,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으므로 병이 참이라고 새롭게 ㉠만을 알게 된다면, 그 수첩은 병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 흰색 수첩은 체육관에 있을 수도 있고, 병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조건화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따라’는 모두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가졌다’는 ‘모임을 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봐’는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얻은’은 ‘병을 앓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바꿨다’는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신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1~25] 문학

[21~25] 고전 시가 - (가)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나) 고전 수필 - (나) 권근, ‘어촌기’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충청도 예산으로 돌아와서 창작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서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소회를 제시한 후 본사에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재미, 풍요로운 전원생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결사에서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상적 시어를 통해 농촌 생활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나랏일에 몸이 매여 있으면서도 강호를 그리워하는 공백공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연의 낙을 즐기며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지향하려는 사대부들의 강호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공백공이 지향하는 어부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러한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의 모습을 통해 번속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강호에 묻혀 살려는 신흥사대부의 풍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2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나)의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하며 때때로 낚싯대를 잡고 노를 저어 조류에 따라 강물을 오르고 내리다가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강 가운데를 흘러 경치를 완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에는 게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흘고 있는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에는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여기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초가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임금이 계신 옥루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자신이 탄 배가 흰 물결을 일으키고 달빛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기울이는 것을 술잔에 비치어 있는 달빛을 기울인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운치 있게 나타내고 있다. ㉥에는 공백공이 벗과 함께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는 흥겨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춘하추동의 경치가 아름답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에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새롭기 때문에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이 바쁘다고 말하며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그물을 걷어 올릴 때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 게를 잡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라 괴로오라’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만경 황운’은 아주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는 가을날 추수를 앞둔 들판의 모습을 ‘만경 황운’에 빗대어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중앙절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내놀이’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청유형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③ 화자는 가을이 되어 붉은 게가 여물었고 노란 닭이 살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④ 화자는 밝은 ‘밤불’ 속에서 게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물이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을 묘사하며 가을날 전원생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2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공백공은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날과 겨울날의 강물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한 후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백공의 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③ 공백공은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때가 없다'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대화의 상대인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백공은 강호에 뜻을 두고 노래에 의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을 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공백공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작가는 공백공이 자신과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늦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아우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후,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껴 그 말을 기록하여 공백공에게 보낸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사욕 없는 마음과 사물을 초탈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와 달리 영화에 매달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달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공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가는 자신이 공백공의 말을 기록한 것이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밝힌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자릉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자릉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⑤ 작가는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그의 음성은 맑고 밝아 천지에 가득 찰 듯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공백공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화자는 ‘강호 어조’와 한 맹세가 깊지만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강호의 은거를 긍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㉕에서 공백공은 자신의 몸은 비록 관직에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㉔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에 미련을 간직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확인할 수 없다. ㉕에서 공백공은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드러낼 뿐, 그 이유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 ㉔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㉕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 ㉔에서 화자가 늙음으로 인해 정치 현실을 체념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㉕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 ㉔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의 이상 실현을 위해 임금께 맹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며, ㉕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26~29] 독서

[26~29] 과학,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지문해설 : 이 글은 손상된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는 장기 이식의 종류와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한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식편은 이식을 통해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이용하는 ‘동종 이식’을 실시할 경우 면역적 거부 반응이 수반된다. 한편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의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이종 이식편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과 관련한 다른 문제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문제가 있는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

는 세포 안에서는 활동하지 않다가 이종의 세포 속에 주입되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
환되어 세포를 감염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NA에 포함
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장기 이식과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한 연구

2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
와는 달리,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
용해 RNA를 DNA로 바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개체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
진다.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유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
현하는 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될 경우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
염되고도 살아남은 생식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
스를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추가 전력 공급과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은 정기적인 교체라는 단점을 갖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
건으로 비용을 낮추어 정기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
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상
적인 이식편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의 내용을 통해 개체 간의 유
전적 거리가 멀수록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④ 3문단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는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 전반에서 이식편이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해 체내에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종 이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동종 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이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이식편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이러한 전자 기기 인공 장기가 아니므로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1문단에서 언급한 개체 사이의 MHC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MHC 차이에 의해 유발된 면역적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5문단에서 이종 이식의 문제점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DNA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므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수혜자에게 이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종 이식으로 인한 초급성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아,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레트로바이러스(㉡)는 4문단에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을 시키고, 이후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 복제, 증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4문단에서 ㉔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으며,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되어 있다. ㉕ 4, 5문단에서 ㉕은 자신에 속해 있는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㉕은 4문단에서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감염을 시키고,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㉕의 작용은 1문단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㉖ 4문단에서 ㉖이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㉔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아,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역전사를 통해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DNA로 바꾼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㉗ 4, 5문단을 ㉗은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될 경우 ㉔으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㉗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고 볼 수 없다.

[30~32] 문학

[30~32] 현대 소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서술자 '나'가 자신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는 범인이 위층의 젊은 여자(서미혜)임을 알게 되고, 그녀를 계기로 영화 '자전거 도둑'을 떠올리며 아버지와 흑부리 영감에 얽힌 일화들을 통해 유년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그려낸 이야기이다. '나'는 캐러멜과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간 사건과 그 과정에서 대면한 흑부리 영감의 몰인정한 모습,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 등을 떠올리며 유년 시절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상처와 삶의 쓸쓸함

3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글에서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에게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소주 스무 병 값을 치르고 열여덟 병만 들고 오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와 아버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흑부리 영감은 막무가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덧붙인다. 마지못해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게로 돌아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른 이유가 그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열여덟 병만 온 것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당황한 내색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가게에 있던 캐러멜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은 '나'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리꽂고 혼내는 장면을 통해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나'의 기분과 무관하게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다녔음을 추측할 수 있다.

31.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흑부리 영감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인 데 반해, '나'는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구멍가게로 돌아와 기어코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흑부리 영감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는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을 확인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음을 짐작하고 있다. ② 아버지가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와 같은 이유를 대며, '닐کم 털어 넣지 못하겠니'라고 권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 대한 미안함을 서툴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③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등을 통해 궁핍으로 인한 '나'의 내면의 상처를 추측할 수 있다. ④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흑부리 영감의 매몰찬 태도는, 어린 '나'에게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32. 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은 아버지가 구멍가게로 돌아와 열여덟 병의 소주를 쓰다듬으며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다.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유년 ‘나’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첫째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라는 표현에서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둘째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독자는 유년 ‘나’가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서 있었던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③ ㉠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므로 독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④ ㉠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독자는 흑부리 영감이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침을 튀기며 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33~36] 문학

[33~36]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유씨삼대록’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유씨 가문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3대에 걸쳐 유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가문의 창달과 번영은 물론 인생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밀도 있게 보여 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제] 유씨 가문 3대의 이야기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선생 형제)은 이 일을 문책하고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찾아가 곡절을 말하고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백공은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다. 이로 인해 한림(유세기)이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

다. ② 백공이 거짓말로 일을 꾸미고 ‘정약’이라는 글자를 더한 탓에,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문책하였다.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다. ④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엄히 꾸짖었다. ⑤ 백공이 한림의 특출함을 아껴 딸의 배필로 삼으려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한림은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34.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장 씨는 낭군(유세형)에게 공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게 되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가 유세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A]는 장 씨의 생각을 드러낸 장면으로, 대화 상대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장 씨가 한스러움을 느끼게 된 사건, 즉 유세형이 부마가 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는 장 씨가 공주의 위세로 인해 억눌림을 당하고 슬픔을 느낀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A]의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B]의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는 공주의 위세로 억눌림을 당하는 장 씨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A]의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공주에 대한 장 씨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B]에는 ‘제가 낭군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라는 의문형 표현이 있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A]에서 장 씨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 장 씨는 진양궁에서 궁비와 시녀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일 등의 지난 일을 토로하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35.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장 씨는 ㉠에서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자신이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슬픔과 한스러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장 씨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장 씨에게 애정을 느끼고 ㉡을 떠나지 않고 신혼의 정을 나누었다. 장 씨의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던 ㉠이 장 씨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인 ㉡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 씨가 ㉠에서 학문을 연마하지는 않았으며, ㉡에서 덕행을 닦지도 않았다. ② 장 씨는 ㉢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였다. ㉣에서 장 씨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도 않다. ④ 장 씨는 ㉤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계획을 꾸미지는 않았다. ㉥은 장 씨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장 씨가 ㉦에서 일의 선후 시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장 씨는 항거할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신세가 구차하고 슬프게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 씨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은 장 씨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3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은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하여 가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유세기가 가법을 어기고자 한 것은 아니며, 백공의 거짓말로 인해 ‘ 좋지 않은 일 ’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하게 된 것은 유세형이 장 씨를 가련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를 문책하고 내쫓은 것,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장 씨가 천대를 받고 한스러움을 느낀 것은 모두 가문의 혼사와 관련된 것으로,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관여하여 유세기를 문책하였다. 또한 백공에게 곡절을 들은 후에 ‘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라고 하였다.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생과 승상 등 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④ 백공은 유세기를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일을 꾸몄다. 천자 역시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다.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혼인 당사자의 부친이 혼사를 주도한 것으로,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유세기는 선생과 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썼으며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였다. 이는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해소되고, 유세기와 관련된 혼사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37~42] 독서

[37~42] 융합(법, 경제), ‘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약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규범인 국제 관습법

과 대비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구 결정의 사례로 BIS 비율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 BIS 비율은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으로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협약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는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된다.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바젤 기준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주제] BIS 비율 규제와 관련한 바젤 협약의 변천과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37.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의 내용을 ‘바젤 I’ 협약, ‘바젤 II’ 협약, ‘바젤 III’ 협약의 순서로 제시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인 조약이나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국제 관습법과 대비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 기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이 2문단에서 설명되고 있긴 하지만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BIS 비율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 역시 설명되고 있지 않다. ⑤ 글의 핵심 화제인 BIS 비율 규제의 주체는 바젤위원회뿐이므로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3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신뢰가 구속력을 형성하는 BIS 비율 규제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조약이나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인 국제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고, 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BIS 비율 규제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

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는 내용이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4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바젤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지 못해 재무 건전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5문단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이 국제기구의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젤위원회의 바젤 기준을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법제화하는 것은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시장에 보여 주기 위험이라는 것을 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39.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바젤 I' 협약에서는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바젤 II' 협약에서도 유지된다. '바젤 II' 협약에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으로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부 모형의 경우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모두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바젤 I' 협약은 회사채에 위험 가중치 100%를 획일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에도 위험 가중치나 위험가중자산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BIS 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바젤 II' 협약은 감독 기관이 필요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0%에서 150%까지이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20%에서 150%까지이다. 만약 위험 가중치가 낮은 국채를 매각하고, 이를 위험 가중치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위험가중자산이 더 커지므로 BIS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⑤ '바젤 III' 협약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였다.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기본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BIS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완자본의 비율이 1.5%라고 할 때 기본자본의 비율이 6.5% 이상이면 BIS 비율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6%를 넘겨야 한다는 ‘바젤Ⅲ’ 협약도 충족시킨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바젤Ⅲ’ 협약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도록 하고 있다. 갑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변동 없이 1,000억 원이고, 기본자본은 50억 원이므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은 $(50/1,000) \times 100 = 5\%$ 가 된다. 따라서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완자본의 증액 여부는 ‘바젤Ⅲ’ 협약의 보완된 기준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갑 은행은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바젤Ⅱ’ 협약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110억(50억+20억+40억) 원이고, 위험가중자산은 1,000억(300억+300억+400억) 원이므로 BIS 비율은 $(110/1,000) \times 100 = 11\%$ 가 된다. 따라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한다. ② <보기>에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만약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은 줄어든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면 BIS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는 가정하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국채나 회사채 모두 동일하게 300억 원이 된 상황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 된다. 만약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큰 1,000억 원이라 가정할 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300억 원이므로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30%가 된다. 즉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보다 낮다. ④ <보기>는 ‘바젤Ⅱ’ 협약에 따라 발표한 표이므로 회사채의 실제 규모에 위험 가중치 50%를 곱한 값이 300억 원이다. 따라서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젤Ⅰ’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이므로 ‘바젤Ⅰ’ 협약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600억(600억×100%) 원임을 알 수 있다.

4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본문의 밑줄 친 ㉠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

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이고,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준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젤위원회가 바젤 기준을 국제 금융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에 구속 받지 않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준의 준수 의무가 있는 회원의 국가가 바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준의 준수 의무가 없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바젤 기준을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과 반대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바젤위원회 헌장은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회원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의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2.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해설 : 국제 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으므로 ‘발을 들이지’를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계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영하여 산출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BIS 규제 비율은 적어도 8%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은 ‘8%가 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말랑말랑한 법’이 ‘딱딱한 법’의 모습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말랑말랑한 법’에 대비되는 ‘딱딱한 법’에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해당하므로 ‘딱딱하게 응고될지’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로 바꿔 쓸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김기택, ‘새’

(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출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괴로움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도시적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을 인식하던 새는, 이내 새장 속의 생활에 적응하여 새장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않고 닭처럼 걷는다. 이는 비상을 위한 날개의 기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새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상을 잊은 채 폐쇄되고 억압된 삶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은,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4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제시 글에서 ‘바람’을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에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에서는 ‘바람’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바람’의 흔들리는 속성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새장에 갇힌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쫓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보기>는 ‘새장에 갇힌 새’를 통해 이 작품이 일상 속에서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의 가치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일상에만 충실하게 살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새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의 구절을 통해, 창살에 부딪친 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새의 모습이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의 모습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지는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은, 마치 날지 않아서 날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닭과 유사하다. 이는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데 그치고 마는 새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